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 10년째 지지부진

광양만청 미온적 추진 ... 규모도 대폭 축소 전망

골프장 등 일부 시설만 조건부 승인 행정만백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이 10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난항을 거듭하면서 사업 규모도 당초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광양만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이 남는 일부 시설만 조건부 승인해 주고 전체 사업 준공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광양만청에 따르면 여수 화양지구를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리조트가 들어서는 남해안 거점 관광지로 육성해 동북아 해양 허브휴양 종합관광리조트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 부지는 9989km(302만평)에 이르며 5개 지구에 1조4435억 원을 투입해 마리나비치, 골프아일랜드, 포레스트밸리, 힐탑, 마운틴탑 등

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의 자금 사정 및 회사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까지의 사업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이 업체는 전체 부지 중 70%를 매입했으나 5개 지구 가운데 골프아일랜드 사업의 일부인 18홀 골프장만 지난해 6월 조성한 후 광양만청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승인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광양만청은 커티지, 콘도 등 부대시설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연장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상해양산업 측이 최근 광양만청에 포레스트밸리, 힐탑, 마운틴탑 등 3개 지구의 사업을 축소할 뜻을 전달, 사업 완공보다 수익을 남기는 시설만 먼저 개장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15년 준공 예정이던 5개 지구별 사업이 지금까지 단 1곳도 마쳐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의 지지부진에는 광양만청의 실적 위주 행정, 무분별한 MOU 체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

인 골프장은 숙박시설(커티지)의 용역이 착수돼 추진되고 있으며 마리나비치지구 내 2단계 사업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골프아일랜드는 내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지구지정 고시된 여수 화양지구는 마리나비치(골프장, 호텔, 펜션, 마리나시설), 골프아일랜드(골프장, 커티지, 콘도), 포레스트밸리(콘도, 호텔, 산악레저타운), 힐탑(스포츠전지훈련센터, 연수원), 마운틴탑(정상전망대, 케이블카) 등이 조성될 계획이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박근혜대통령 '희망 복주머니' 보성 전통염색 명장이 만들었다

한광석씨-취임식 참석도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 화제를 모았던 광화문 복주머니(사진)가 보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낳고 있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복주머니를 만든 장인은 보성군 별교읍에 거주하고 있는 전통염색 명장 한광석(55)씨다. 그는 보성군 문덕면 공예공방에서 염색과 옷기, 도자기 등을 만들고 있는 예술가로 대통령 취임식 뒤 광화문에서 열린 희망의 복주머니 제작 행사에 중요무형문화재 침선장 구해씨 씨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 장인과

국민대표 8명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복주머니는 한씨가 염색한 전통 무명이 사용됐으며, 희망이 열리는 나무에 걸려있는 365개의 조그만 복주머니 역시 한씨가 제작했다.

평소 전통염색 유산 소재로 쓰는 염색 천이나 염색 방법에서 오로지 전통방법으로만 작업하고 있는 한씨는 매년 공예공방 2층 갤러리에서 봄·여름·가을 3차례씩 정기적으로 전통공예 전시회를 하고 있다. 오는 4월14일에는 공예공방 2층 갤러리 're'에서 정기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신안 가거도 '슈퍼방파제' 착공

1441억 들여 2018년까지 1만급 케이슨 등 설치

국토 최서남단인 신안 흑산면 가거도 슈퍼 방파제 건설 공사가 6일 시작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거도항 방파제 유실 등의 피해를 막고 100년 주기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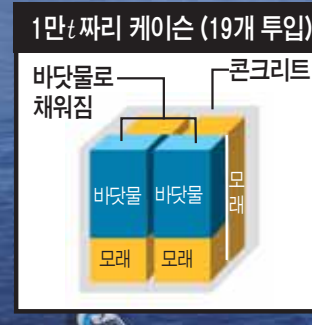
관리단은 64t짜리 테트라포드(TTP) 대신 초대형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1만급 사각 콘크리트(케이슨) 19개와 100t급 소파블록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케이슨은 높이 28.7m, 폭 28m로 아파트 10층 높이이다. 한 개를 제작 시공하는 데 3개월 가량 걸린다.

이 초대형 케이슨은 방파제 380m 구간에 설치한다. 완공되면 방파제 폭은 기존 15m에서 110m로 확장된다. 설계 파고도 현행 50년 빈도인 8.3m에서 100년 빈도인 12.5m로 상향 조정했다. 슈퍼방파제는 국비 1441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완공할 예정으로 (주)삼성물산이 시공한다.

가거도항에는 1978년부터 30여년에 걸쳐 1300여여원이 투입됐지만 콘파스(2010년), 무이파(2011년), 지난해 블라벤 등 수차례 태풍으로 방파제가 유실되는 피해가 반복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숫자로 보는 슈퍼 방파제

480m(길이)
110m(폭)
42m(높이)·물위12m·바닷속 30m
12m(견딜수있는파도높이)



전남 무역·연안항에 556억 투입 기반시설 보강·여객선터미널 건립

전남도는 올해 지방으로 위임된 무역항과 연안항에 총 5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만 기반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연안여객선터미널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도 무역항·신마항·홍도항 등 5개 항에 493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물양장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완도항에는 63억원을 들여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한다.

기반시설사업으로 무역항인 완도

항에는 계속사업으로 정비시설 축조에 78억원,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33억원을 투자하고, 신마항 건설과 갈두항 정비에 각각 54억원과 42억원을 들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지난해 태풍 블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완도 화흥포항은 개선 복구사업으로 90억원의 예산을 확보, 3월에 착공해 태풍 시기 이전인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도항은 계속사업으로 재해 취약

지구 정비공사에 33억원을 들여 방파제를 보강하고 신규사업으로 동방파제 축조공사에 163억 원을 투입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역 연안항은 11개소다. 지방관리항은 녹동항·홍도항·신마항·갈두항·송공항·진도항·화흥포항·나로도항 8곳이고 국가관리항은 거문도항·대흑산도항·가거항리항 3곳이다. /오광목기자 kroh@

신안 천일염 명품화 사업

郡, 염전 바닥재 개선 등 252억 지원

신안군이 252억원을 투입, 천일염 명품화 사업에 나선다.

6월 군에 따르면 염전 바닥재 개선, 슬레이트 지붕 교체 등 6개 사업 신청자를 6월 말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천일염 생산·처리비용 절감, 소득향상, 천일염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생산 천일염의 명성을 지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군은 그동안 염전창고 등을 덮고

있던 슬레이트 제거에 44억원, 바닥재 개선에 142억원, 자동화 시설에 19억원을 지원해 생산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군 관계자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명품 천일염 생산 의지가 대단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외국 마케팅이 주효하다면 신안 천일염의 세계화는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신안지역은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광양 진상 '뽕은 감' 재배

임업진흥원과 현지 교육

광양시는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7월 진상면사무소에서 '뽕은감 재배관리, 가공기술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한 현지교육을 실시한다.

뽕은감 전지 전정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전지전정의 이론

과 실기 등에 최고 전문가인 구례농업기술센터 서재만 팀장, '청도반시'라는 명품을 만든 조기동 청도군 진한농업과장,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남지사장 정성택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교육은 뽕은감의 재배 및 꺾음 가공기술 향상,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CJ **헬로비전** www.cjhelle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불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넷 TV ▶ 헬로넷 ▶ 헬로폰

SAVE 최대 56% **헬로셋**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로

※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